

노무사단기 2024 합격수기 공모전

■ 합격 정보

1) 1차 시험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 (과목명, 점수)
80	88	88	88	경영, 67.25

2) 2차 시험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명, 점수)
287.82(63.2)	174.29(58.09)	216.23(72.07)	민사소송법 189.54(63.18)

■ 합격 수기 (자유롭게 작성)

1. 인적사항

준비형태 : 직장병행(공무원 재직 2년 반) + 휴직(1년 반)

준비기간 : 2020. 9월 ~ 2024. 8월 (4년)

시험구력

- 수능 2번, 공무원 시험 다수.

- 현유예[1차 2번(2021년, 2023년), 2차 4번 응시]

성격 및 특징

- 스트레스 임계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예민하지 않고 대체로 단순하게 생각하나 대신 그만큼 엄청 덜렁대고 굉장히 무심한 편입니다. 이것 때문에 친구 여럿 잃었습니다....^^

- 큰 계획을 세우나 분 단위로 세우지 않습니다. 월 계획 및 대략적인 하루 공부량만 목표 설정하는 편입니다. 설사 그 목표가 어그러져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닙니다.
- 아침잠이 많은 편입니다. 엄청난 악필이나 글씨가 크고 필속이 빠릅니다.
- 시험 때 긴장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외로움을 잘 안타서 스터디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가족과 친한 친구들한테 가끔씩 힘든 점을 토로했습니다.
- 운동 전혀 안했습니다.
- 목차 안 짜고 바로 쓰는 스타일입니다.
- 인강 듣는 것을 싫어하는 편입니다.

□ 성적표

연도/과목	총점	평균	노동법	행정쟁송법	민사소송법	인사노무관리론
2021(직장병행)	601.26	44.53	49.37	45.69	38.16	42.5
2022(직장병행)	777.65	57.60	53.94	58.05	59.87	60.39
2023(직장병행+전업)	805.04	59.63	63.2	57.6	58.3	57.4
2024(전업)	867.88	64.28	63.2	72.07	63.18	58.09

II. 과거 시험들의 패인(敗因)

□ 생동차 : 절대적인 시간 투입 부족

1 차 합격 이후 2 차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법이 과락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생유예 : Output 연습 부족

생동차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지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식 공부하던 스타일대로 Input 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결과 Output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동법은 case 풀이를 한 기억이 거의 없다싶이 합니다.
직장병행이어서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나 output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노동법이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현동차

1. 논점 일탈

공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output 연습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는
주말에 학원도 다니고 모의고사도 봤습니다. 행정쟁송법의 경우 최고답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논점 일탈 다수(행정쟁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논점 일탈) 발생하였고
이것이 결국에는 합격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 첫째 날의 여파

첫째 날 인사관리에서 한번도 연습해보지 못한 주재원 인사관리가 나왔고 25 점자리
문제를 1 장 쓰고 나왔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 살면서 쓰러질 것같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둘째 날 과목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Ⅲ. 2024 년 과목무관 공통적인 합격 요인

1. 논점 일탈 無

작년과 달리 논점 일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수없이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 걱정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제대로 읽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2.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

시험에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특히 행정쟁송과 민사소송에서의 ‘불’시험 속에서
정신을 제대로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딱봐도 저만 어렵게 느낀 것이 아닌 것이
체감돼서 논점을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 수없이 ‘정신차리면 된다’ 백번 넘게
외친 듯것 같습니다.

3. 심리적 여유를 가지기

4 번째 시험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을 버렸습니다. 직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서
긴장감을 많이 버리라고 격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는 원래 성격도 그런데

제 시험이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굉장히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 먼저 시험 얘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시험을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기본서로의 수렴 ★★★

전 과목 공통으로 그 어떤 과목도 기본서가 아닌 책으로 단권화한 책이 없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든, 새로운 자료가 나오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기본서로 회귀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시험의 준비는 시험 마지막에 가져갈 책을 단권화하는 작업입니다. 문제집으로 수렴하는 것은 공백이 많이 발생하는바, 최종적으로는 기본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5. 일반론의 중요성★★

인사관리 제외 법과목은 포섭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반론이 60% 이상의 중요성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포섭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론을 다 썼습니다. 포섭은 결국 일반론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일반론을 제대로 암기하고 쓰는 것이 포섭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론을 다 써서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를 다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6.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의 원천 : 수치적인 상승세

세번이나 떨어짐에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치적으로 제가 성장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진작에 접었을 것입니다.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 조금씩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서 자기효능감을 얻었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고지가 다 왔다! 끊임없는 자기주문을 걸었습니다.

IV. 2024년 기준 과목별 공부 방법

□ 행정쟁송 (예상점수 : 66, 실제점수 : 72.07) - 정선균(2~3기, 4년 내내 들음)+윤 OO(3기만)

1. 평가 : 논점 일탈 없고 답 모두 맞혔습니다. 다만 3문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기입하였으나, 포섭을 乙이 아닌 甲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답은 乙로 적었습니다.

2. 공부방법

- 현유예때부터는 GS2 기부터 들었습니다.

- 고득점 요인은 기본서의 회귀가 가장 큼니다. 기본서로 시작하고 기본서로 끝낸 과목입니다. case 문제집은 C 급까지 다를 수 없습니다. 기본서 회독의 좋은 점은 불의타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막판에는 C 급을 버리긴 하지만 B 급을 훑을 순 있습니다. 한번 훑고 안 훑고 차이가 점수 차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 다양한 논점 접하기

수능을 사회문화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사회문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이 적지만 응용력이 굉장히 높은 과목이랄까요? 노무사 시험 범위가 타 행정 관련 시험들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톡시 하나를 바꾼다거나 한번 꼬아서 생각하게끔 하는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즉 다른 과목에 비해서 유독 응용되는 문제가 많은 과목입니다. 기본서 회독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기본개념이 어떻게 시험문제화 되는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군쌤 문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예상점수 : 57, 실제점수 : 58.09) - 최종락★★

1. 평가 : 논점 일탈은 없으나 다수의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IRP 언급 안함, 임프로세어 정의만 적시, 관대화오류를 중심화오류로 잘못 기재.)

2. 공부방법

- 점수가 낮고 원래도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할 말이 없습니다. TTTT

-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며, 응용력이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중략쌤 책에 있는 것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이런 인사 무지렁이에게 인사가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중략 척척박사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수능, 공무원 시험 등 강의를 들어봤지만 '경영'이라는 학문을 이렇게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득력 있게 해준 강사는 중략쌤이 유일합니다. 뜬구름 잡는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사사사사랑합니다.... 답변이 느리시지만 대부분의 해답이 책과 강의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답안 쓰는 틀을 안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냥 중략쌤 책 그자체가 답안입니다. 중략쌤은 정말 정말 멋있습니다....척오..... 저의 원픽! ♥♥♥ 저만의 연예인!!!!

□민사소송법 (예상점수 : 57, 실제점수 : 63.18) - 김광수

1. 평가 : 논점 일탈은 없으나 다수의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케이스에 부합하는 일반론만 적시, 송달 단문에서 효과, 판례, 이익권 안 적음)

2. 공부방법

현유예때부터는 GS2 기부터 들었습니다.

특별한 공부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해용 ㅋㅋㅋ 단문은 반복해서 그냥 외웠습니다.

케이스 역시 광수 쌤 책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V. 공부에 도움된 도구 추천

1. post-it 분류형 종이 ★★★

두문자는 무조건 이 포스트잇에 적어서 시각화했습니다. 한눈에 두문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2. 목차인덱스에 투명테이프 마감처리 ★★★

플라스틱 인덱스로 해도 말랑말랑거려서 나중에는 꾸겨지는데 그 위에 투명테이프로 덧대면 완전 날서게 됩니다!!!

3. 플러스 플테이프

4. 3M 스카치 매직 테이프

VI. 나가며

제가 글을 워낙 잘 못 씁니다. 제 친구는 제 글을 보고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직관적이라고 하더군요. 제 졸작에 그렇게나 예쁘게 포장해준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제 투박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병행하며, 전업으로 해나가며 4 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네요.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큼니다. 경제적 자유가 있었다면 저도 전업으로 했을 겁니다. ㄱㄱ흑흑

4 년의 기간 중 공부를 하는 기간보다 결과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몇만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떨어져도 다시는 시험을 보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털고 가지만요.

제가 이 시험의 승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단 몇점차로 승패가 갈라지는 이 수험판에서 저는 세 번의 저의 시기가 아닌 때를 지나 네 번 째만에 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합격의 기쁨보다 떨어진 분들이 눈에 밟힘은 제 과거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4년의 수험기간을 생각하면 20대를 골방에서 썩힌 제 청춘이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납니다. 다들 그렇다는 것, 나만 나아가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떨든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